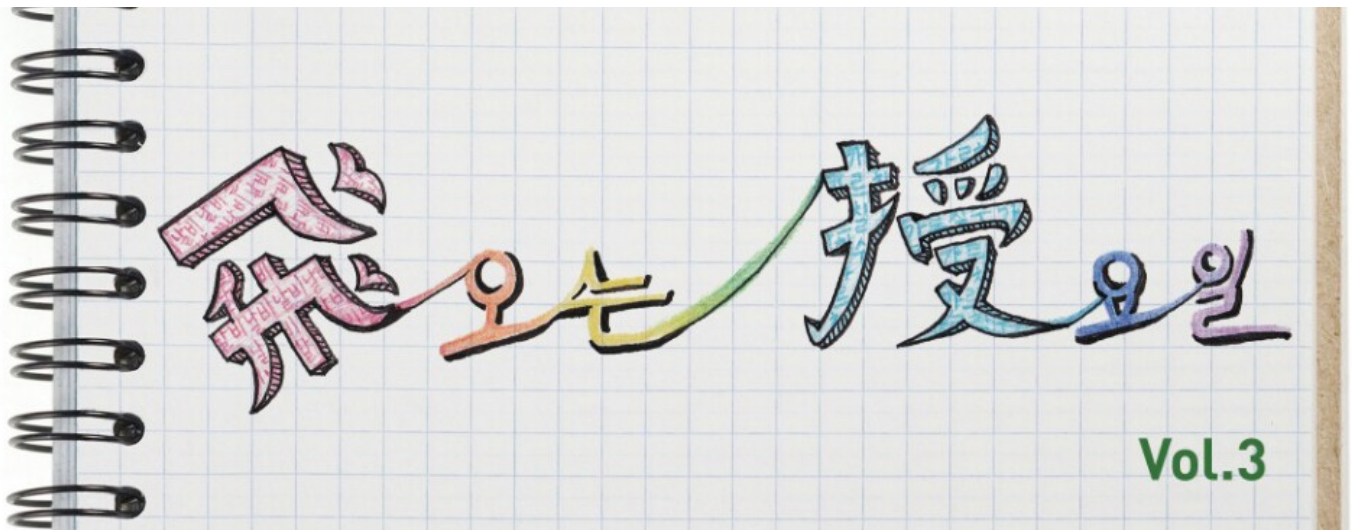




다섯번째 이야기

세미나는 삶의 활력!

BEE오는 수요일 이번 주의 주인공은 부천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성일 집사님입니다. BEE사역자로 부천팀을 초창기부터 섬기면서 거의 모든 과목의 세미나를 인도하였고 지난 11년 간 한 학기만 거른 채 매 학기마다 1~2 과목을 인도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BEE KOREA 본부이사로 새롭게 임명되었습니다. 본 교회뿐만 아니라 BEE에서도 특히 부천팀에서 커다란 역할을 해온 그의 이야기를 이제 풀어봅니다.



Q. 간단히 본인 소개(가족 및 사역)를 해 주신다면?

가족으로는 아내 가지현 집사와 딸 이준희(고2), 아들 이준혁(중2)이 있습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 비사역자로 섬기고 있고요 저는 부천캠퍼스 팀장과 본부 이사, 성경연구원 부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온누리 부천캠퍼스에서는 대청 멘토이기도 합니다. 직장은 20년 동안 KB증권에 몸담고 있으며 현재는 본사 재무파트 부장을 8년째 맡아오고 있습니다.

Q. BEE를 접하게 된 계기는?

2002년 온누리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몇 년 뒤 일대일을 받게 되었는데 양육자분이 BEE인도자였습니다. 과정을 마치고 나니 양육자께서 제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저를 온비아에 등록시키셨습니다. 그런 상태로 2006년 온비아 6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세미나를 통해, 아웃리치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비아를 마치자마자 또 다시 그분이 FTS과정으로 저를 무작정 인도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가보자 했던 것이 벌써 11년째 사역자로 섬겨오고 있네요^^

Q. 온비아 때 받은 큰 은혜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저에게는 많은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목사님들, 신실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도 풀 수 없었던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대로 최악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실 수는 없으셨는지... 등등 고민을 많이 해오던 차에 로마서 세미나를 통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밖에도 많은 의문점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베트남 아웃리치에서는 현지 교회 목사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건축헌금을 유도하셔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빨리 숙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는데 마지막에 그곳 마을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한 형제님이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던 나를 붙들고는 '당신을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막 울면서 말하는데 순간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심하게 핍박 받는 베트남의 상황들이 생각났고 극한 처지에서도 함께 모여 너른 마당을 가득 채워가며 기도하는 베트남 교인들의 모습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목사님과 다름없이 세상기준으로만 판단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네가 왜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왜 그러니?'라는 주님의 음성과도 같은 소리가 계속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제껏 열심히 해왔던 사역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저 일상의 업무처럼 쌓아 올리기만 했던 '내 사역'이었다는 큰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귀국 후 이어졌던 '그생' 세미나에서는 한 과 한 과가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각 과마다 하나씩 하나씩 회복을 주셨습니다. 제 삶과 신앙의 큰 전환점을 이룬 시기였죠.

Q. 어렸을 때의 꿈은?



아주 어렸을 때는 목사였습니다. 3대 째 크리스천 가정이었던 집안에 목회자, 장로님도 많았고 부모님 모두 신앙이 독실하신 분들이라 공부보다는 신앙을 우선시했던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신앙의 본으로 여기며 살았던 터라 다들 제가 신학대학으로 진학하리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고3이 되어서 주변에 목사님들을 바라봤을 때 것처럼 살아가는 게 참 싫은 마음도 들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대학은 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아버님은 무척 실망했지만 결국 받아 주셨습니다. 이후 사업가의 꿈을 키우기도 했고 회계사 준비도 하면서 졸업하고서는 증권사에 잠시 다닌다는 생각으로 입사하게 된 게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Q. 아내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점심 시간에 친구를 만나러 저희 회사에 왔다가 처음 저를 보게 되었는데 그 동료 직원 소개로 만나게 된 거죠. 8개월 교제할 때는 하루 세 번씩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은 영등포역에서 픽업하고(아내 집이 안양), 점심시간엔 같이 만나 식사하고, 퇴근하고서는 또 안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교회는 가끔씩만 나가던, 신앙이 거의 전무했던 자매였지만 언제부턴가 결혼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당연스레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자

주 만났어도 8개월동안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는데..... 2000년도에 결혼하고 그 후 5년간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내는 무엇보다도 신앙의 차이로, 가열차게 청년부 사역을 했던 저를 이해 못하고 심지어는 이중인격자(집과 교회에서의 태도가 너무 다르다는...)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사회초년병으로 모든 게 잘 될 줄로만 알았는데 일마다 잘 안 풀렸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너무 크게 느껴졌고, 또 신앙면에서도 오래 다녀왔던 교회(동대문 동안교회)를 떠나 이 교회 저 교회로 전전하게 되면서 많이 불안하고 날카로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내에게 상처도 주고 많이 힘들고 외롭게 했던 것 같아요.....



Q. 부부와의 위기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아내는 특히 BEE 공부하던 저를 유난히 싫어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미나 교재들로만 씨름을 하니 누군들 좋아했겠습니까?^^ 그러던 중 ‘그리스도인의 결혼’ 세미나를 같이 듣게 되었는데 아내야말로 다른 어느 이웃보다도 섬김의 첫 대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회복이 되어 서로 간에 깊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과목 No.2가 ‘그결’입니다ㅎ (No.1은 로마서). 그 무렵 가훈도 ‘가화만사성’에서 잠언 16장 9절 말씀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Q. 부천에서도 BEE 사역을 하면서 한 때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던데...?

네... 부천 캠퍼스에 BEE사역이 사라질 뻔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이 너무 잘 되었던 게 탈이라면 탈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팀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BEE사역에만 집중했던 거죠. ‘BEE사역을 하면 공동체 사역을 안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해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많은 분들이 사역을 떠나면서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또 내 사역, 우리 사역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일 특채 기간이라 남은 팀원 다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도 많이 하고요. 그때부터 사역자들이 모두 교회의 각 사역에 흠어져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BEE사역도 함께 병행하면서요. 현재 팀원 24명이 너무나 가족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역들을 하다가 함께 모이면 서로 위로가 되고 회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흐르는 것을 느끼고 있죠. 지금은 교회 어느 사역팀에서나 BEE식구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큰 밑거름이 되었던 거죠.



Q. BEE 사역에 매력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는 특히 교회리더십을 대상으로 복음 안에서 세워 나아간다는 일이, 그분들로부터 다시 전달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참 좋은 사역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BEE사역을 못 떠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사용하신다는 점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BEE를 사용하십니다.

Q. BEE 사역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글쎄요... 감히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부천팀이 지금 누리고 있는 가족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가 BEE 전체의 모습으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Q. 본인을 간단히 표현할 세 가지가 있다면?

잘 떠오르지 않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색깔로 이야기해서 무지개색?!! 청년부 멘토로 모임에 나갔을 때 자신을 소개하는 색깔을 질문 받았었는데 옆에서 아내가 알려주었어요. 이유는 모든 상황마다, 주어진 역할마다 각각의 색깔을 내면서 잘 순응하고 적응한다는 의미라나요 ㅎㅎ



Q. 가장 좋아하는 것 세 가지? 가장 싫어하는 세 가지?

좋아하는 것은 책 보고 공부하기, 사람 만나서 깊은 이야기하는 거, 아이들과 놀아주기.

싫어하는 것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는 몸무게. 이건 정말 많이 싫어합니다 ㅎㅎ..... 더는 없네요. 두 가지만 ㅎㅎ

아, 좋아하는 것 한 가지 더 있네요. 요리, 음식 만드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잊을 만하면 아이들이 해달라는 '보쌈'을 특히 잘 합니다. 아이들 자라면서 쿠키, 빵, 케익 등도 만들어주고 아이들 위주로 주 메뉴가 바뀌어 왔습니다. 다 집에서 독학으로 레시피 보면서 배운 것들입니다. 음식 하는 걸 좋아하고..... 잘 하는 편입니다^^

Q.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 점에 관해 많이 이야기하고 훈내주기도 합니다. 다른 일들은 관대한 편이죠.

Q.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가장 힘들었을 때는?

가장 행복했던 때는 아내와의 신혼여행. 그리고 '그결' 세미나 후 방향을 끝내고 아내와 진정으로 화해했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결혼 후 5년간 방황하던 위기의 그 시절입니다.



Q. 앞으로 10년 후를 그려보면?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회사도 그만둘 것이고 마침내는 선교지로 나가 있지 않을까요?..... 그 시기는 심각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어느 정도 동의해 주었고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러브소나타 홍보 영상을 보는데 일본 분들의 교회 모습을 보면서 그곳의 나이 드신 성도님들, 목회자분들을 돕고 싶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앞에 나서기보다 그분들 옆에서 뒤에서 밀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Q. BEE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나요?

사역을 이어가는 연결자. 혹은 전달자. 얼마 전에 본부이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은 리더로서의 임무보다는 많이 보고 파악하고 정리해서 사역을 이어받을 분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감당해야 할 임무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잘 결실을 맺어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Q. 나에게 BEE란?

산소! 삶의 활력소! 세미나를 하고 있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세미나 하고 있을 때와 하지 않을 때가 모든 방면에서, 직장 생활 포함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받아줄 것만 같은, 힘든 상황에도 끝내 묵묵히 밀고 나아가는, 어느 역할이라도 적응 가능한 능력을 지닌 집사님이라고 하면 너무 과장되었을까요? 본인은 스스로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고 했지만 올해 저희 표어에 걸맞은 일군이 이사로 뽑힌 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 서빙고캠퍼스에서 프로젝터 케이스를 어깨에 메고 큼지막한 가방을 들고서는 성큼 성큼 세미나 장소로 걸어가던 모습이 아직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집사님의 선하면서도 매서운 눈매 너머로 간직하고 있는 BEE에 대한 소망을 엿볼 수 있어서 늦은 시간이었지만 한편 감사한 인터뷰였습니다. (글:김종영, 편집:이경주)



성경연구원과 부천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성일 집사입니다. 2006년 온비아 과정을 통해 BEE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해 세미나와 베트남 아웃리치를 통해 신앙과 인생의 의미 있는 큰 전환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인 가지현 집사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천온누리교회 동역자 분들과 함께 BEE가족으로 행복한 동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간혹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BEE를 의미 있고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BEE 일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BEE가족분들과 즐겁게 함께하고 싶습니다.

BEE 소식

- Qatar 졸업식 일정
 - 졸업 일자 2018. 4. 14
 - DPM(Diploma Practical Ministry) 36명
 - DCL(Diploma Church Leadership) 13명
 - CPM(Certificate Practical Ministry) 55명
- 졸업식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고 졸업한 모든 분들이 비 사역에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